

‘5G 폰’ 등장에 ‘LTE 폰’ 보조금 확대... 최대 50만원

‘갤S10e’ 공시지원금 40만원
추가지원 받으면 40만원대 구입

제조사·통신사 손실 가능성에
LTE 폰 가격 인하 시간 걸릴듯

지난 3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이 공급되면서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지 일주일이지났다. 5G 스마트폰 공세에 오히려 재고소진 차원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가격이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장기적으로 5G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 LTE 스마트폰의 출고기도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향적인 출고가 안하나 공시지원금 인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출시된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



모델이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사전판매 소식을 알고 있다.

/LG유플러스

‘갤럭시 S10e’는 공시지원금이 40만원대에 달한다. 3월 말~4월 초 5G 스마트폰 출시 전 공시지원금을 올려서다. 단말기 출고가는 89만9800원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

격으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4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을 위주로 프로모션도 진행돼 10만원대~20만원대에 구매했다는 인증글도 온라인을 위주

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9’의 출고가는 지난 2월 95만7000원에서 85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SK텔레콤에서는 지난 3일 기준, 갤럭시S9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51만2000원까지 높였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조기 교체 프로그램으로 최신 LTE 스마트폰도 중고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향후 약정 없이 가전제품처럼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급제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중고폰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5G 초기 단계이고 ‘갤럭시S10’ 등 최신 LTE 스마트폰이 저렴하게 중고폰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중고폰 시장에 최신 LTE 스마트폰 가격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다.

휴대폰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는 “결

국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며 “스마트폰 교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 스마트폰이나 다름없는 LTE 폰이 시장에 풀려도 제조사와 통신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춰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스마트폰에 비해 70~80% 정도의 가격으로만 나와도 중고폰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가격”이라며 “반값 정도로 떨어질 때야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갤S10의 경우 가격이 낮춰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5G 초기 LTE와 혼재된 상황이라 얼리어답터를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는 오히려 저렴한 LTE 단말을 선호할 수도 있다. 공시지원금은 비교적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폴 해리스 회장 등 레인 임원들이 LG유플러스 마곡사옥 1층에 마련된 ‘U+ 5G 이노베이션 랩’에서 U+ 5G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LG유플러스

남아공 통신사가 LG U+ 방문한 까닭은

임원들, 5G기술 벤치마킹 위해 견학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사업자 레인(Rain)이 한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찾았다.

LG유플러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사업자 레인의 폴 해리스 회장, 윌리엄 루스 최고경영자, 브랜드 리 최고 전략책임자(CSO) 등 주요 임원들이 마곡사옥을 방문, LG유플러스 5G 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레인은 남아공 통신사업자로, 롱텀

에볼루션(LTE)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남아공 통신사업자 중 유일하게 5G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일본 통신회사인 소프트뱅크와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도 LG유플러스를 방문한 바 있다.

레인 관계자들은 LG유플러스의 가상·증강현실(VR·AR)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 해리스 레인 회장은 “남아공의 유력한 5G 사업자로 키우는데 있어서 세계 최초 5G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5G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직접 본 것이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LGU+ 5G체험단 유플레이어스 2000명 모집

LG유플러스는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LG V50 싱큐(ThinQ)’ 출시를 앞두고 2000명의 5G 체험단 ‘유플레이어스’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플레이어스는 회사명인 ‘유플러스’와 ‘플레이어스(Players)’의 합성어다. LG V50 싱큐 스마트폰을 통해 U+5G 서비스를 재미있게 즐기고, 사용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이를 소비자들에 전파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뜻한다.

유플레이어스는 오는 2020년 4월까지 1년 간의 활동기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U+5G서비스

를 알린다. 아울러 다른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5G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개진한다. LG유플러스는 이들의 의견을 서비스 기획단계나 기능 업그레이드 시 반영해 차별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유플레이어스에 선발되면 LG V50 싱큐를 1년간 무상 임대해 주고 300여 편의 U+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VR 전용 헤드셋(HMD)도 제공된다. 또 데이터 무제한 혜택이 제공되는 5G 요금제인 ‘5G 프리미엄(월정액 9만 5000원)’도 지원받는다.

/김나인 기자

쌍용차 ‘코란도’ 앞세워 유럽공략 박차

벨기에에서 중부유럽 론칭 행사
하반기부터 글로벌 판매 시동

쌍용자동차가 지난 달 8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준중형 SUV 코란도를 벨기에와 영국 등 유럽시장에 공개하며 글로벌 판매 물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8~29일(현지시간) 벨기에 안트베르펜 퀸 엘리자베스 홀에서 열린 코란도 중부유럽 론칭 행사에는 쌍용차 해외영업본부장 임한규 전무를 비롯해 베네룩스 3국과 독일, 스위스 등 중부유럽 지역 쌍용자동차 대리점 및 판매점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에 전시된 코란도의 내·외관을 둘러보며 8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코란도의 매력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높은 수준의 다양한 편의사양, 2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벨기에 안트베르펜 퀸 엘리자베스 홀에서 열린 코란도 중부유럽 론칭 행사.

/쌍용자동차

열 공간을 비롯한 넉넉한 실내공간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등 코란도의 상품성과 경쟁력에 만족감을 보이며 판매 확대 의지를 다졌다. 또 지난 2일에는 영국 런던 북서쪽 버밍엄에서 100여명의 현지 대리점 및 판매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란도 영국 론칭 행사가 열렸다.

한편 지난 2월말 국내 출시 후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처음 선보인 신형 코란도는 고효율 가솔린 엔진을 추가하고 강화된 안전성과 2.5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등 혁신적인 기능과 첨단 기술을 갖췄으며, 오는 하반기부터 유럽 판매를 시작으로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 등으로 글로벌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중 ‘디지털 전환’ 혁신, 대외적으로 인정

SAP ‘피나클 어워드 2019’ 수상
한국 제조업 기반 기업 최초 선정

두산중공업이 ‘디지털 전환’ 혁신을 이뤄내며 국내 제조업 기반의 리딩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최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가 선정한 ‘피나클 어워드 2019’를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IT 기업이 아닌 제조업 기반 기업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상하며 최근 속도를 높이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피나클 어워드는 SAP의 전세계 약 1만8800개 협력 파트너사 중 뛰어난 가치와 업적을 세운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두산중공업은 SAP가 선정한 30개 부문 가운데 약 1000여 개의 회사 경쟁한 ‘올해의 ISV 파트너’로 선정됐다. 특히 이 부문에서는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두산중공업이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두산중공업은 SAP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발전소 운영 최적화 솔루션을 인도에 공급해 발전소 운영 효과를 극대화시킨 결과에 힘입어 이번 상을 수상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해 11월 인도 최

대민자발전사인 사산파워가 운영하는 발전소에 연소최적화, 보일러 튜브 관리시스템 등의 디지털 솔루션을 공급했다.

연소최적화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수십만 가지 운전 시나리오를 분석해 연소를 최적화시키는 기술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개월 간 인도 사산파워 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개선하고 NOx(질소산화물) 등의 환경물질 발생을 기존 대비 약 30% 저감시켰다. 보일러 튜브 관리 시스템은 보일러 튜브의 수명을 사전에 예측해 예방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일러 비상정지 상황을 방지해 결과적으로 발전소 가동률을 높인다.

/양성운 기자